

# 木偶像의 服飾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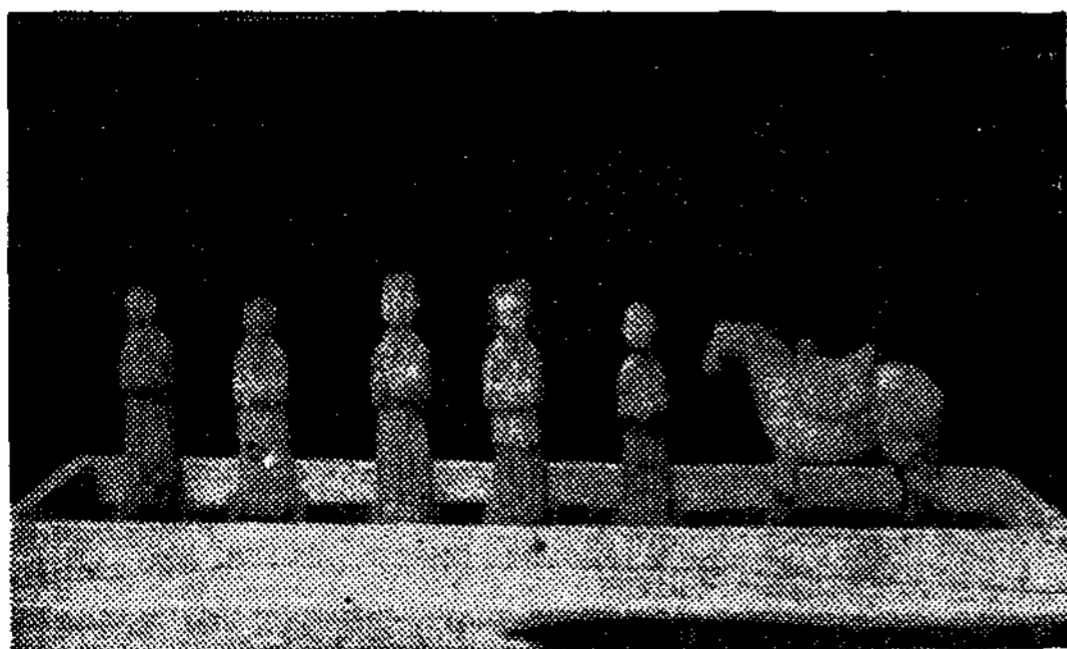
李 京 子

<目 次>	
I. 緒 言	(2) 襦
II. 木偶像의 服飾 形狀	(3) 裳
III. 木偶像의 服飾 考察	(4) 頭飾
(1) 袍	IV. 結 言

## I. 緒 言

最近 서울近郊(관악구 方背洞)에서 出土된 男女木偶像 5點(표4 참조)이 公開됐다.<sup>1)</sup> 筆者는 所藏者 李元基씨<sup>2)</sup>의 好意로 木偶像을 實測하고 그 服飾形狀을 考察했다.

木偶像가 出土된 것은 銅雀洞 國立墓地를 지나 約 3km, 果川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못미처 왼편의 丘陵地帶이다. 隣近住民들에 의하면 이 一帶의 우거진 숲에는 여러基의 古墳(그중 1基는 매우 큰 古塚이었다고함)이 있었으며 日政때도



木偶像五人像

손바닥같은 銅錢과 도자기·항아리 등이 出土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古墳들은 다른 出土品으로 보아 麗末·鮮初것으로 推定되는데 70年度의 宅地造成工事로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木偶像의 出土는 이 宅地 造成 工事 때 工事場 警備員이 密搬出한 것이라 한다.

木偶像의 年代는 出土狀況이 分明치 않아 確定하기가 어려우나 所藏者는 麗代·鮮初로 보고 있다.

木偶像는 머리와 다리에 腐蝕된 部分도 있고 彩色이 벗겨지는등 一部損傷이 있긴 하나 比較的 잘 保存돼 있고 着用한 服色도 基本 形制는 識別이 可能하다.

本 論文은 이들 木偶像에 나타난 服飾을 考察하고 그 結果를 文獻과 對比하며 整理한 것이다.

本 論文에서 붙인 木偶像의 番號는 便宜的인 것이다.

## II. 木偶像의 服飾 形狀

이번에 公開된 木偶像는 男 3, 女 2의 5人이다. (표4 참조) 이중 男子木偶像 1點은 少年像임이 分明

1) 月刊 文化財, 6月號.

2) 月刊 文化財, 發行 및 編輯人.

하다. 그러나 이들木偶의身分·血緣 등의 相互關係는 알 수가 없다.

木偶에서 分揀해 볼수 있는 服飾은 男子像의 袍와 頭飾, 女子像의 襦·裳과 頭飾이다. 일부 頭飾과 履飾은 腐蝕된 탓으로 볼수가 없다. 이들 服飾은 실루엣과 프로포션등 基本型態는 쉽게 分揀해 볼 수가 있으나 그 細部構成과 色彩 등은 分明치 않은 點이 많다.

木偶別로 觀察한 服飾의 形狀은 다음과 같다.

(1) 男子木偶①

袍를 着用하고 拱手한 모습이다. 袍의 길이는 바닥에 끌릴만하며 허리에 띠를 둘러 前結하고 그 끝을 무릎밑까지 느리고 있다. 袍의 색깔은 白色으로 보이나 확실치 않으며 띄는 紅色이 分明하게 남아 있다. 領과 袖口는 검게 나타나며 이 곳은 달군쇠로 지진자리 처럼 보이기도 한다.

袍의 衽은 右衽前開型이며 交衽이 깊다. 동정이나 袷선은 따로 나타내지 않았다. 소매는 直배래의 筒袖型이며 袖口는 꽤 넓고 袖長은 상당히 길어 보인다.

아래 끝部分의 腐飾으로 履飾이나 下衣는 볼 수가 없다.

頭部에는 이마 높이에 칼자리를 내고 검정색을 칠해 冠帽의 形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아랫쪽 뒷머리는 민머리로 보인다. 冠帽에 가려 髮型을 알 수가 없다.

(2) 男子木偶②

역시 袍를 着用하고 拱手한 모습. 男子木偶①과 같은 右衽의 긴 袍를 입고 있다. 腐蝕이甚하고 나무결이 複雜하게 나타나 男子木偶①만큼 자세한 觀察이 不可能하나 紅色의 띠가 분명히 보이며 띠의 處理가 男子木偶①과 꼭 같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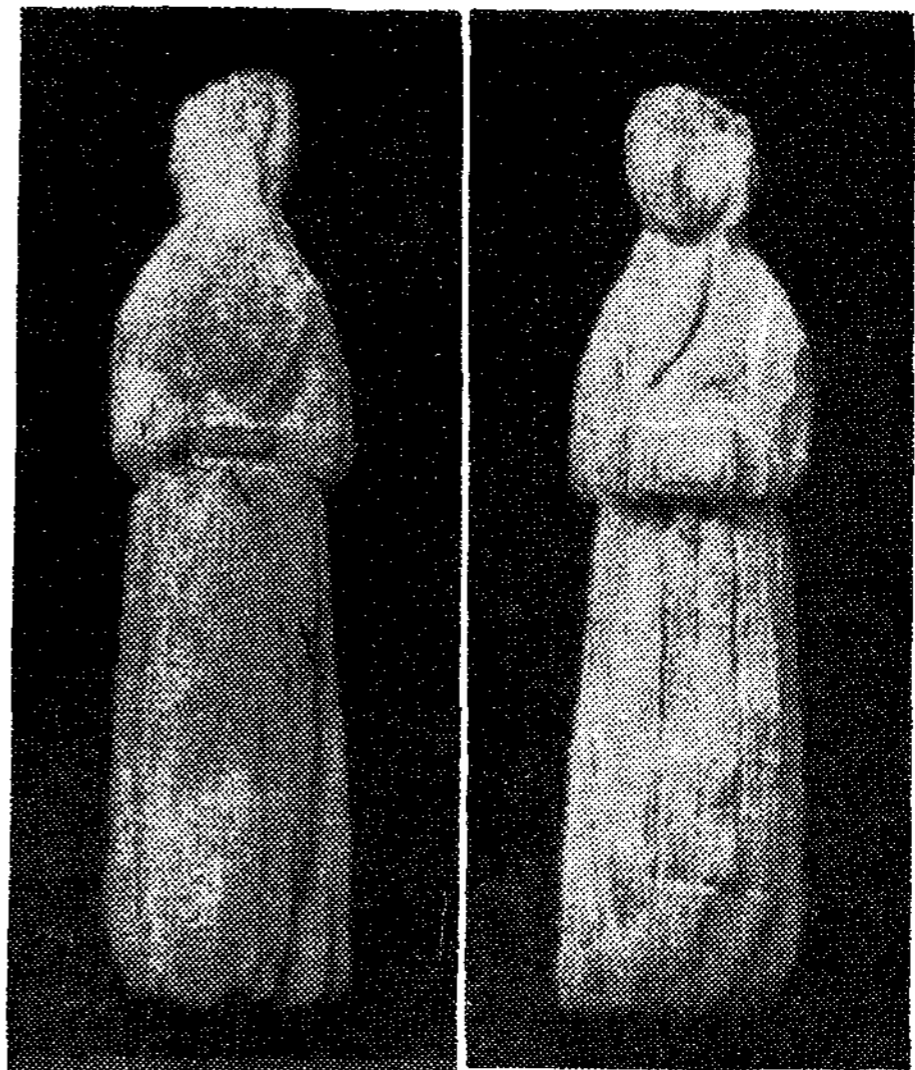
얼굴과 머리部分, 아래 部分은 損傷이 甚해 服飾을 가릴 수가 없다.

(3) 男子木偶③

袍를 着用하고 拱手한 모습은 ①, ②와 같으나 少年像으로 보인다. 袍制와 帶의 색깔과 前結處理등은 ①, ②와 同一하며 소매가 曲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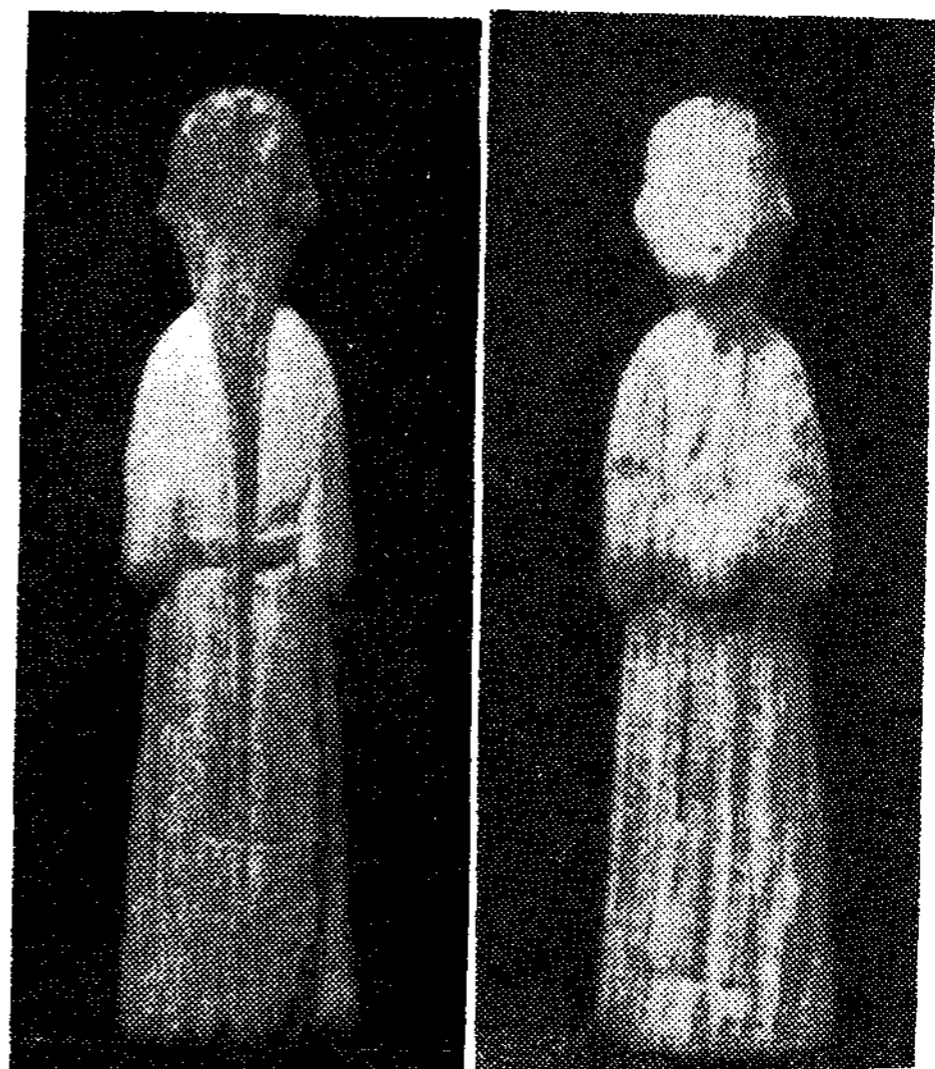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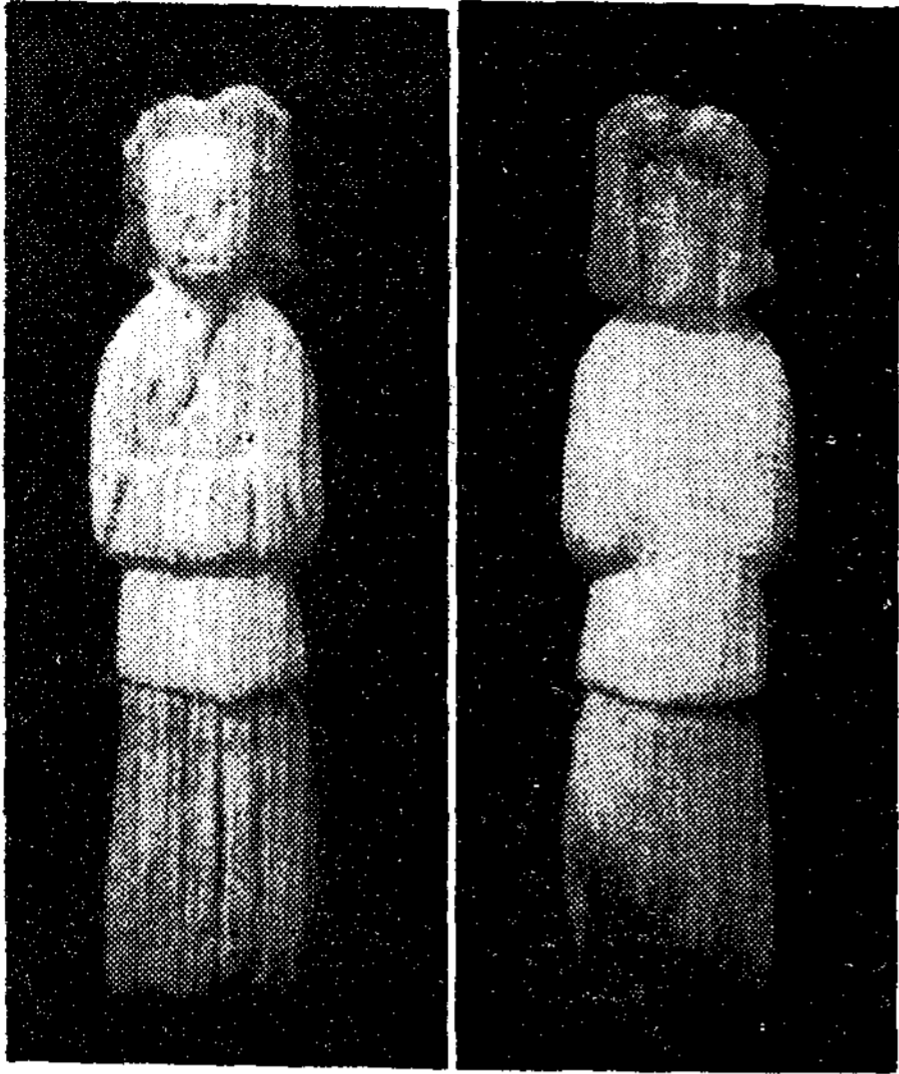
男子木偶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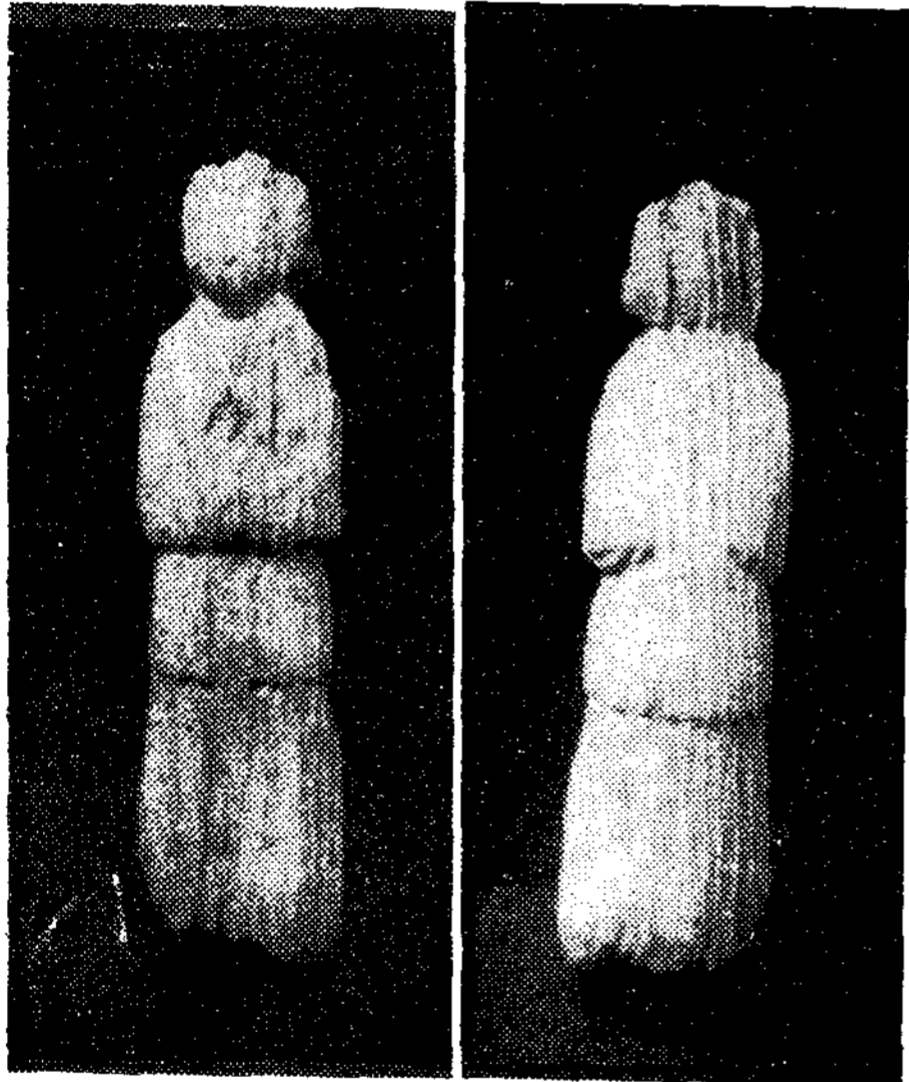
男子木偶 ②

男子木偶 ③↓





女子 木偶 ①



女子 木偶 ②

래처럼 보이는 점이 다를뿐이다.

머리는 긴 被髮을 느리고 있다. 그 길이는 무릎께에 이를만큼 길다.

#### (4) 女子 木偶 ①

襦와 裳을 着用하고 拱手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襦는 엉덩이를 덮을 만큼 길고 색깔은 白色으로 보이며 領襟과 袖口도 同一色이다. 襟은 右襟에 交襟이 깊으며 跗선은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 소매는 直배래의 窄袖狀이다. 고름과 띠는 確認할 수가 없다. 다만 뒷

모습 허리部分에 칼자국이 있어 細帶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疑心하나 男子像의 袍帶를 表現한 方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띠라고 보기는 어렵다.

裳은 길이가 땅에 닿을만큼 길며 赤色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앞모습에는 襦밑으로 느려진 두갈래의 허리끈을 볼수가 있다. 이 말기끈은 치마와는 別色이며 무릎을 지날만큼 길다.

머리 끝部分에 若干의 腐蝕이 있으나 冠帽을 쓰지 않은 髮型이 잘 나타나 있다.

원머리 뒷쪽은 加髻한 것으로 보인다. 뒷머리 밑部分은 斷髮모양으로 가지런하게 다듬고 있다.

#### (5) 女子 木偶 ②

역시 襦裳차림에 拱手한 모습이나 불에 탄 듯한 흔적으로 裳의 밑部分이 없어졌고 머리도 앞部分의 損傷이 甚하다.

襦는 그 基本形制가 ①과 흡사하다. 다만, 색깔은 노랑彩色이 베껴진 흔적이 있고 袖口에는 赤色의 흔적이 남았다. 소매는 ①보다 若干 좁아 보인다. 裳은 形色이 ①과 같으나 赤色외에 一部 黄色의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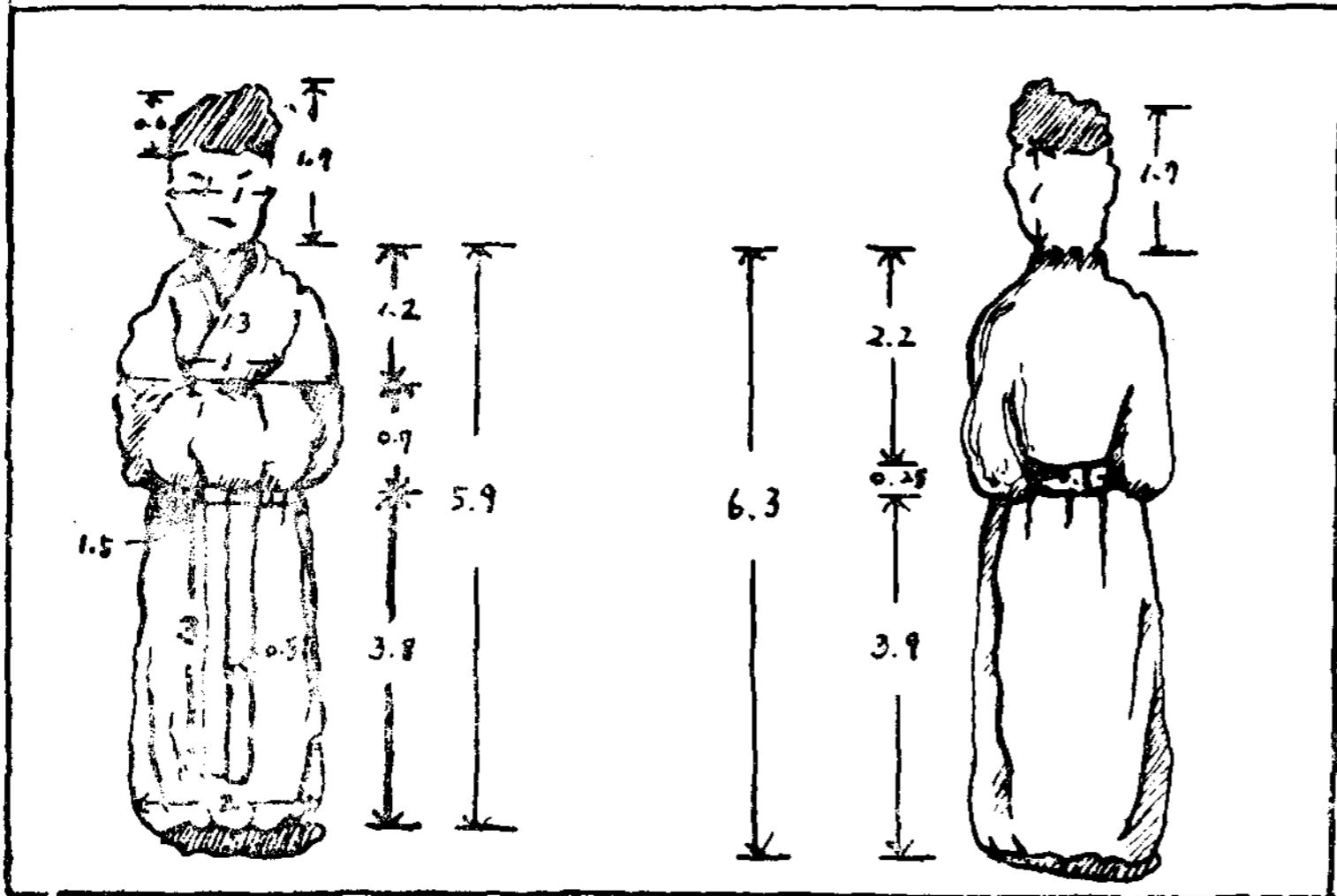
머리는 뒷모습에서 ①과 같은 모양의 加髻를 짐작해 볼수가 있다.

### Ⅲ. 木偶의 服飾 考察

#### (1) 袍

우리 服飾은 일찍부터 中國의 袍를 愛用했다. 高句麗古墳壁畫에는 이미 여러種類의 袍가 보인다. 이들 古墳壁畫의 袍는 大別하여 두가지 形制가 있다. 하나는 中期以後 古墳에 보이는 것으로 짧은 袍, 長襟의 左·右襟 混在, 帶의 後結 등이 그 特徵이다. 이는 어느程度 國俗化한 型式이다. 또 다른 形制는 길이가 긴 右襟袍로 帶를 前結한다. 이 樣式은 漢色이 길은 前期古墳에 나타나니 中國制를 繼承한 것이라 생각된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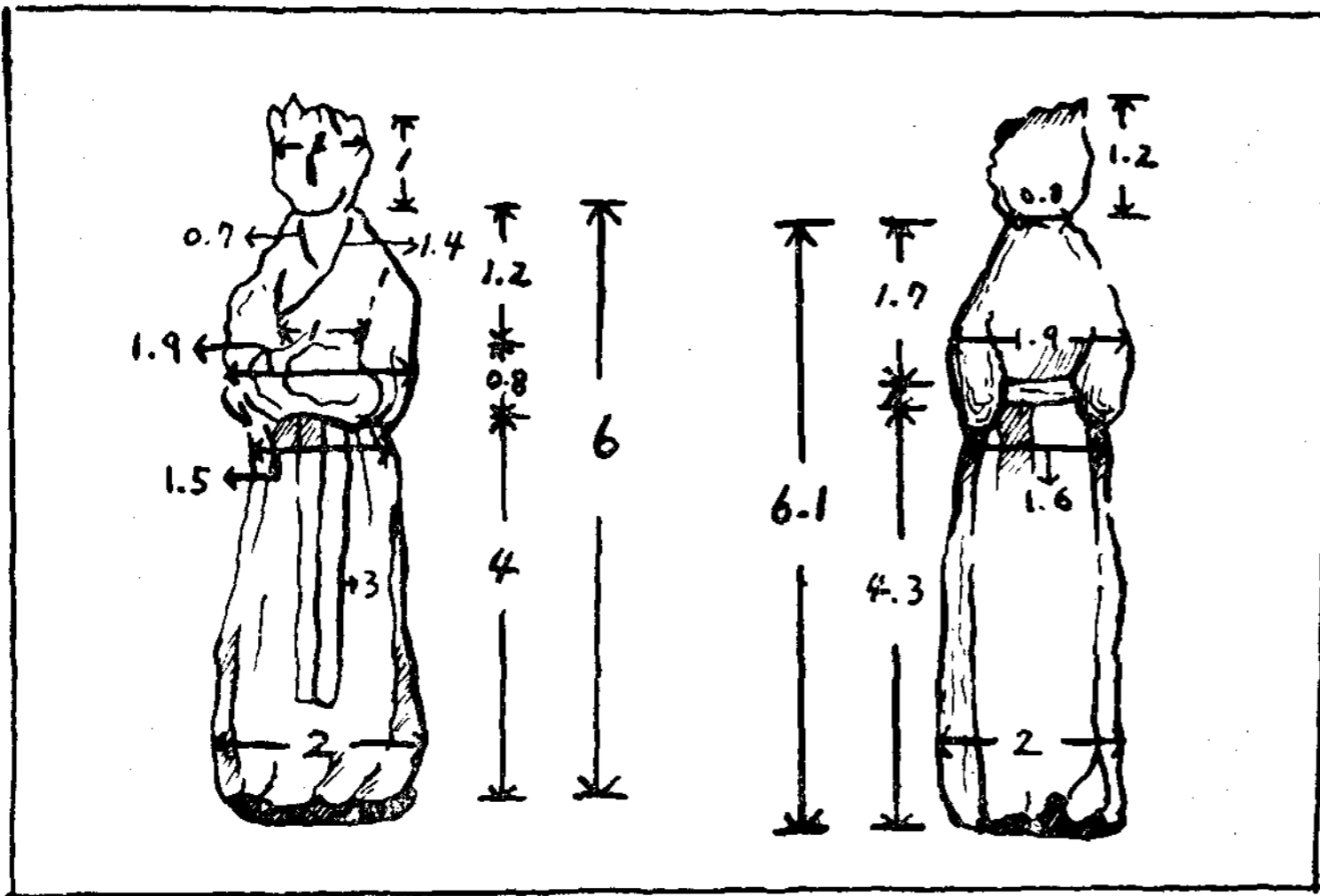
3) 拙稿,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研究, p. 230.



木偶像 ①의 實側圖(袍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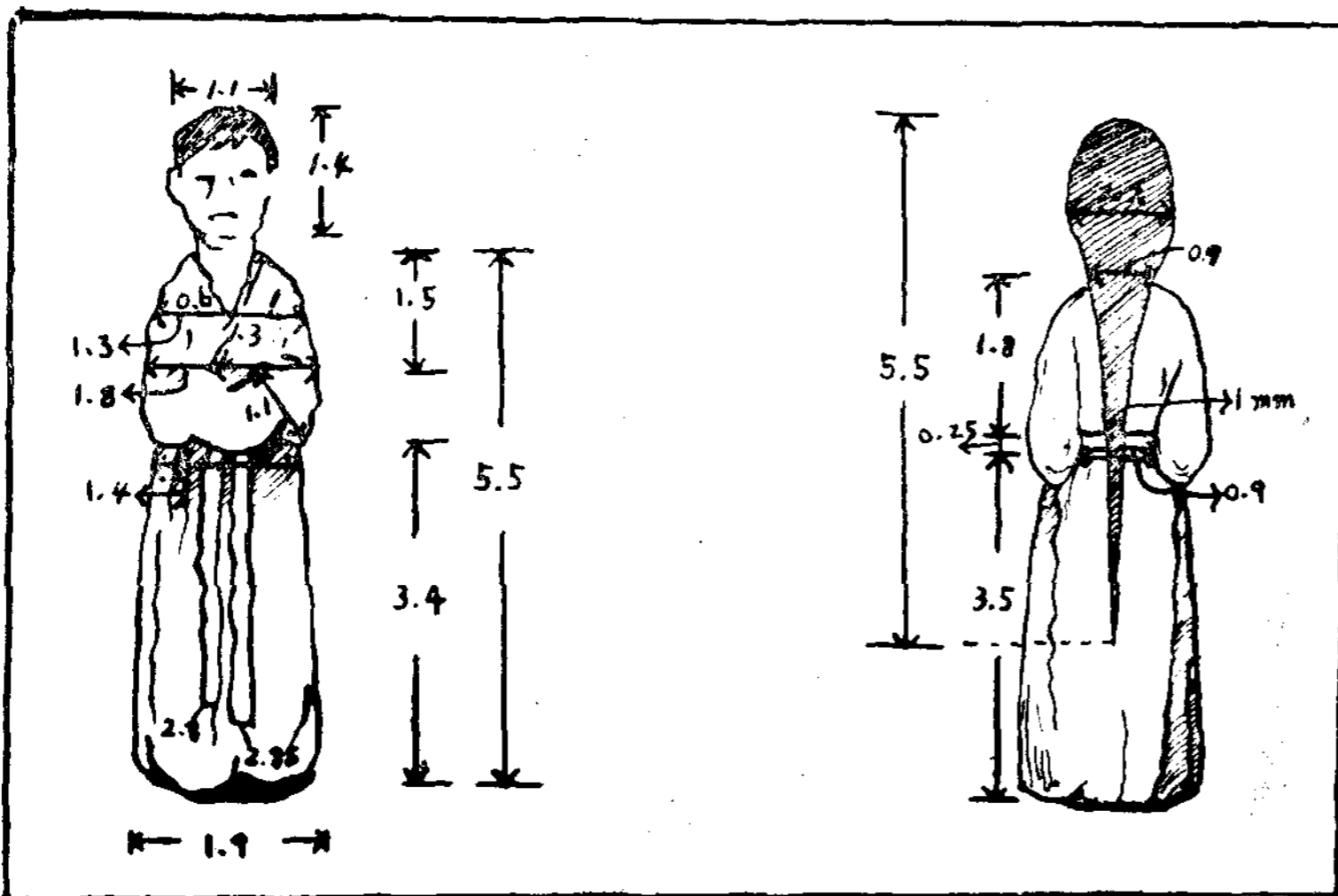


(도 1) 安岳 3號墳 行列圖



↑ 未偶像 ②의 實側圖(袍참조)

↓ 木偶像 ③의 實側圖(袍참조)



木偶의 袍는 위 두가지 形制 중 後者와 治似한데 특히 安岳 3號墳 主室廻廊行列圖 中間人物의 袍와 같다(도 1). 兩者를 비교해 보면 ① 直領의 깃, ② 右衽의 깊은 交衽, ③ 발목까지 닿는 袍長, ④ 前結하여 느린 束帶方式, ⑤ 筒狀소매 등이 모두 一致하고 두두러진 差異點은 領·裾 등의 襟이 없는 것 뿐이다. 이로서 보면 木偶의 袍는 三國以來의 古制를 거의 그대로 傳承하고 있다.

古墳壁畫에서 보는 袍는 男女共用이긴하나 대부분이 女服袍요 男服袍는 몇몇 漢化의 例外가 있을 뿐이다.<sup>4)</sup> 따라서 三國時代의 袍는 女服에 더 널리 普及되고 男服에 있어서는 儀式的인 意味를 지녔던 것이라 생각된다. 어느 境遇건 이 때의 袍는 어디까지나 第2義的인 服制요, 襦袴의 우리 固有服飾이 第1義的인 位置를 지키고 있다.

그러던 것이 麗代에 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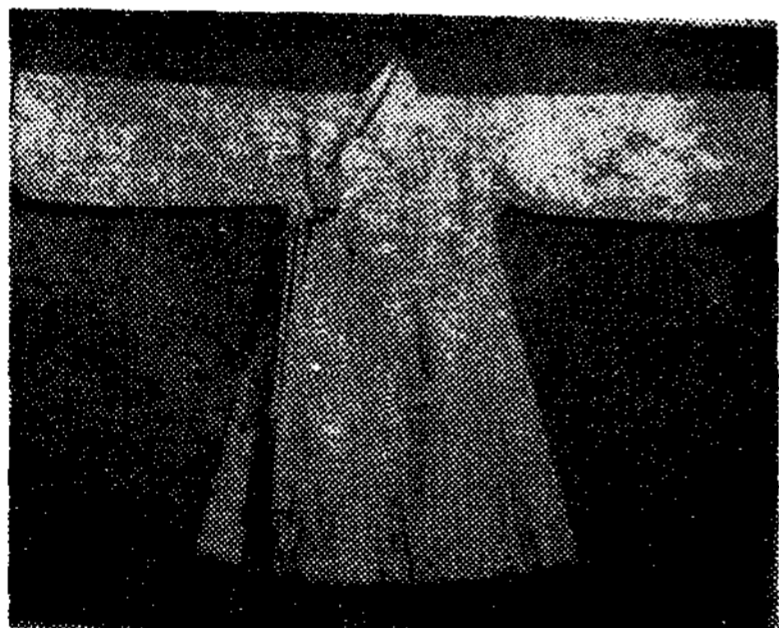
4) 앞책, p. 125.

는 袍가 男女服 가림없이 第1義的인 옷으로 登場한다.<sup>5)</sup> 高麗圖經에 王 便服을 「白紵袍與民庶無別」<sup>6)</sup>이라 하고 女服은 「白紵爲袍略如男子」<sup>7)</sup>라 하며 民庶服으로 農商의 「其服皆以白紵爲袍」工技의 「常服白紵袍」<sup>8)</sup> 民長·進士의 「皂紵爲袍」라 한것 등은 이를 말함이다.

이에 대하여 木偶의 女服은 襦裳으로 固着이 되어 袍는 볼수가 없고 男服에서만은 袍가 第一義的인 地位를 固守하고 있다. 이는 高麗圖經의 袍制가 또 한차례 變轉된 樣相인데 圖經에 말한 「白紵袍」, 「紵袍」는 三國以來 男服袍의 基本을 이어온 國俗袍요,<sup>9)</sup> 그 形制는 木偶의 袍와도 비슷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近世服飾의 第一義的인 옷은 女服의 襦裳, 男服의 袍이니 이는 木偶의 袍制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木偶의 袍는 어떤 變遷過程을 거쳐서 近世服飾의 袍나—現今의 周衣—두루마기로 連結이 되는 것일까.

現存하는 最古의 袍인 光海君(1609~1622)의 袍와 木偶의 袍를 比較해 보면 兩者는 소매가 筒袖라는 것외에는 共通點이 없다(도 2). 더구나



(도 2) 光海君袍(韓國服飾史)

光海君袍에는 옆트임과 고름이 있어 木偶의 袍와는 異質的이다. 또 지금까지 남아 있는 朝鮮朝末期의 袍類 10餘種가운데서도 木偶의 袍와 특히 連結지을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로서

보면 木偶의 袍는 高句麗袍에 가깝고 그 後代인 近世袍에 이르는 期間은 空白으로 남는다. 現在의 史料로는 三國以來의 國俗袍—高麗袍가 朝鮮朝의 道袍—주의로 傳承이 된다는 推定은 可能하지만<sup>10)</sup> 그 過程을 確證있게 說明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木偶의 細部構造를 보면 近世袍와의 根本的인 差異는 帶의 形狀이다. 男子木偶 3點 모두에 뚜렷한 紅色으로 남아 있는 이 袍帶는 帶幅이나 前結해 길게 느린 形狀으로 미루어 袍帶가 틀림없다. 모양은 古墳壁畫의 機能的인 袍帶에 비하면 훨씬 裝飾的인 意味를 더하고 있는것 같다.

이에 反하여 近世服飾의 國俗袍는 帶의 餘미는 機能은 고름이 대신하고 帶는 거의 形跡뿐인 細條帶가 있을뿐이다. 이것은 絳紗袍 直領袍 道袍 弊衣 帖裏 등의 가슴높이에 매고 있으니 木偶의 袍帶와는 形制가 전혀 다르다. 이 밖에 木偶의 袍帶와 幅이 비슷한 廣多繪類가 있긴 하나 木偶의 袍帶가 이와 같은 것인지는 斷定하기 어렵다.

그러나 木偶의 袍帶는 近世袍의 成立時期를 추정할 하나의 지침이 된다. 帶의 消滅—고름의 生成이 上代袍와 近世袍를 區分하는 뚜렷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帶의 消滅은 麗代로 推定하며<sup>11)</sup> 蒙古服屬期以前에는 몇몇 斷片的인 文獻記述을 依存하여 袍帶가 있었으리라 짐작해 왔으나<sup>12)</sup> 木偶의 紅帶는 그 모양을 實際로 보여주며 또 袍帶가 一般的인 推定보다는 相當히 後代까지 存在했음을 立證하고 있다. 하지만 木偶만으로는 帶의 存在가 언제까지라고 斷定하기는 어렵다.

木偶에 나타난 袖形은 앞서 말한대로 高句麗袍와 恰似하다. 이는 蒙古服의 影響으로 袍袖가 窄袖化했다는 推論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蒙古服屬以前에도 窄袖가 있었음은 高麗圖經 在

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p. 356.

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 7.

7) 앞책, 卷 20.

8) 앞책, 卷 19.

9) 金東旭, 앞책 p.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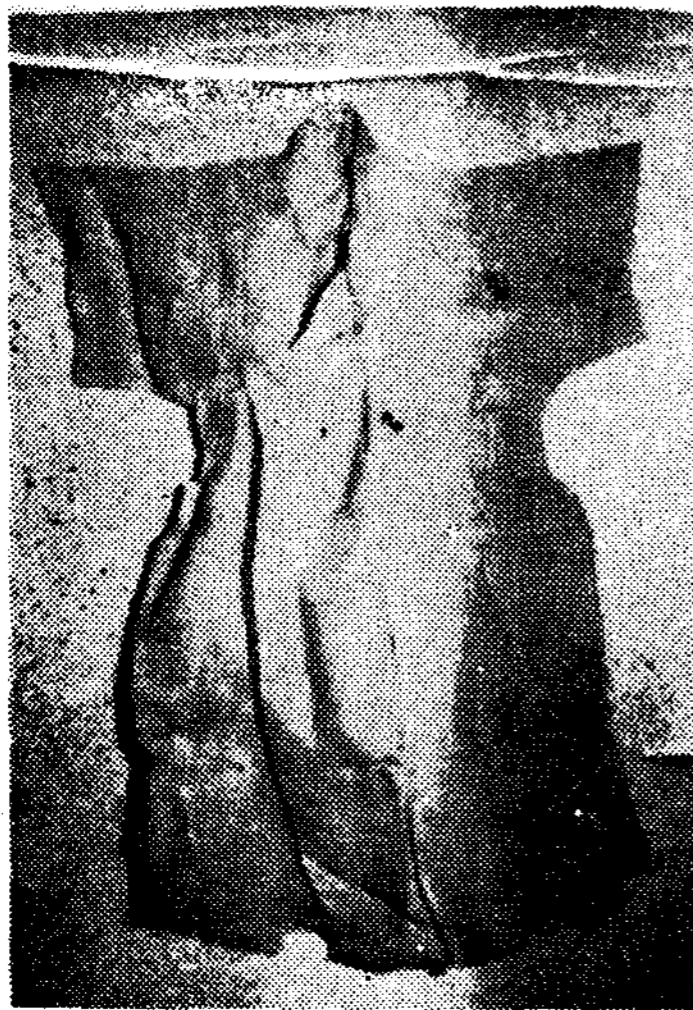
10)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p. 173.

11) 拙稿, 女子저고리小考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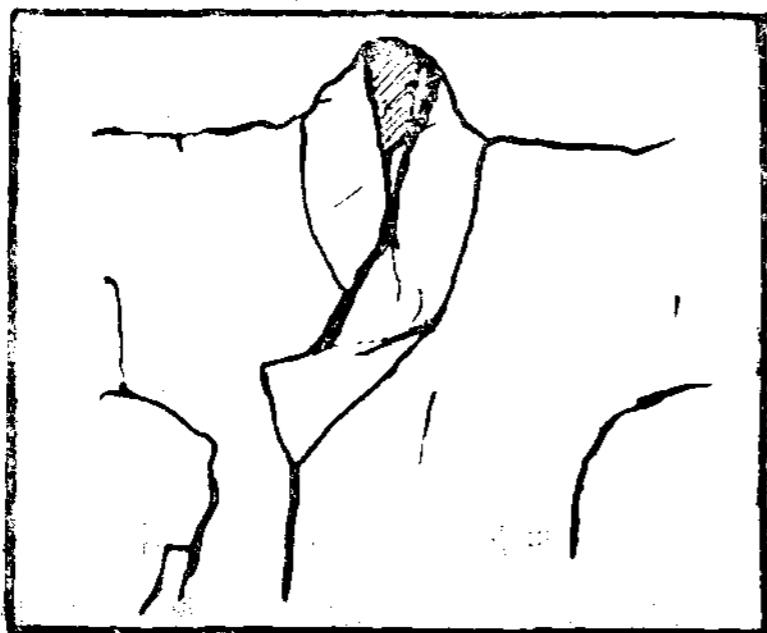
12) [徐 兢, 앞책, 卷18에 在家和尚服으로 「白紵窄衣 腰束皂帛」이라 함.

{ 金東旭, 앞책, p. 301.

家和尚服條<sup>13)</sup>에도 보이고 下庶人服이 窄袖라는 推論도 可能하거나와 木偶의 袍袖는 역시 三國以來의 國俗이라 볼 것이요 이런 袖形은 近世服飾에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燕山君 11年(1505)의 廣袖令<sup>14)</sup>으로 짐작할 수가 있으니 이뒤 30餘年이 지난 中宗 32年(1538)에는 濶袖가 지나쳐 窄袖令을 내리고, 이 禁令이 제대로 施行이 안됐던지 壬亂중인 宣祖 26年(1593)에 다시 窄袖令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서



(도 3-1) 紵袍



<도 3-2> 紵袍의 깃모양

보면 近世袍의 成立時期는 朝鮮朝中期라 할 것인데 純祖 34年(1834) 記錄에는 「舊時는 回肘할 程度이나 지금은 濶重成步한다」<sup>15)</sup>고 보이나 「回肘할 程度」의 袖는 古墳壁畫——木偶를 거쳐 朝

鮮朝初期에 이르는 우리 國俗이요, 蒙古의 影響만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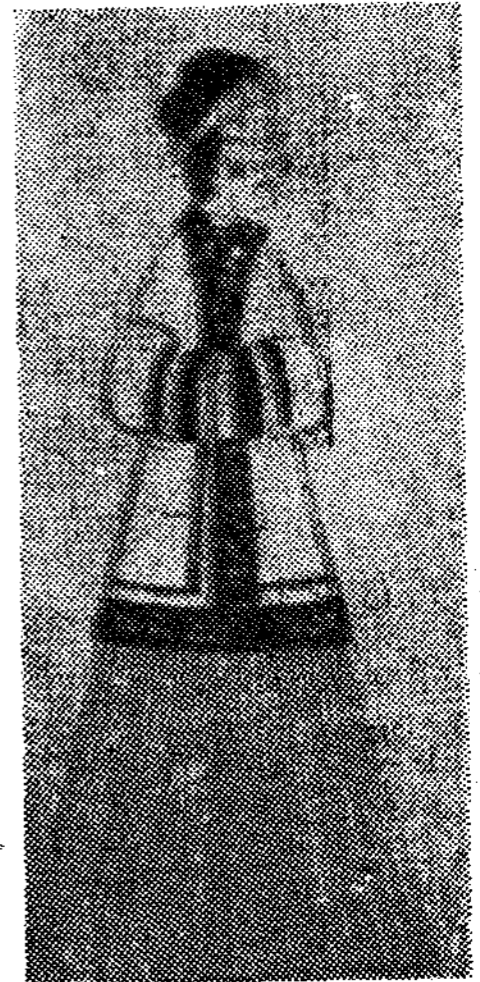
끝으로 言及할 것은 文殊寺 金銅如來座像의 腹藏品인 紵袍(도 3)다. 이 袍는 忠穆王 2年(1346)記의 發願文에 비추어 麗代袍임이 틀림없고 半袖인 것이 特徵이다. 그 基本形制는 高麗圖經「白紵袍」의 遺制를 간직한 것이라 일단 추측하고 이것이 僧服이라면 高麗圖經에 보인 阿闍黎大德의 「其服短袖偏衫」과 關聯지어 볼만하다. 그런데 이 袍를 着用한 領型은<sup>16)</sup> 木偶의 袍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年代가 確實한 이 袍는 木偶의 年代를 比定하는 資料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襦

우리 나라 女服의 襦는 北方系인 上古時代 襦制로부터 近世 저고리에 이르는 하나의 흐름으로 把握이 된다.<sup>17)</sup> 이 가운데 우리 固有形制를 지닌 襦形은 高句麗古墳 壁畫로 確認이 되나 그 뒤의 變移 發展 過程을 具體的으로 밝힐 史料는 없고, 1560年代에 이르러 重要民俗資料인 安東金氏의 壽衣에서 비로소 저고리의 實物을 본다. 木偶의 襦는 兩者의 中間空白期를 메울 새로운 史料가 된다.

木偶의 襦는 一見하여 古墳壁畫의 襦와 恰似하다. 古墳壁畫중에서도 우리 固有色彩가 짙은 雙楹塚夫人像(도 4) 등의 襦制와 木偶를 比較해 보면——

- ① 襦長 : 兩者 모두 엉덩이 밑까지 내려 오게 길다. 이와 같은 長襦는 우리 襦制의 가장 두드러진 固有特徵이다. 襦와 裳의 比例는 實測



(도 4) 雙楹塚 夫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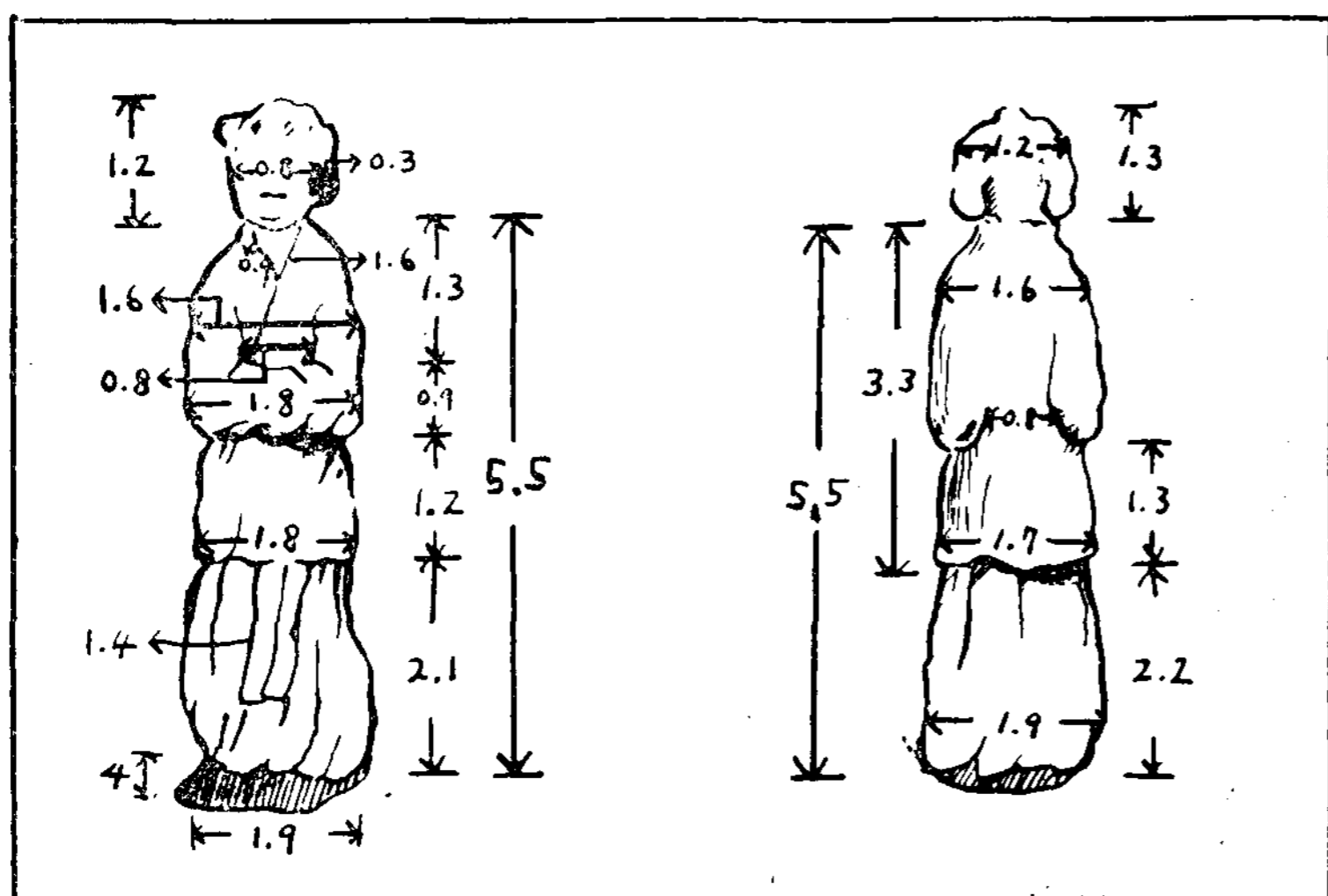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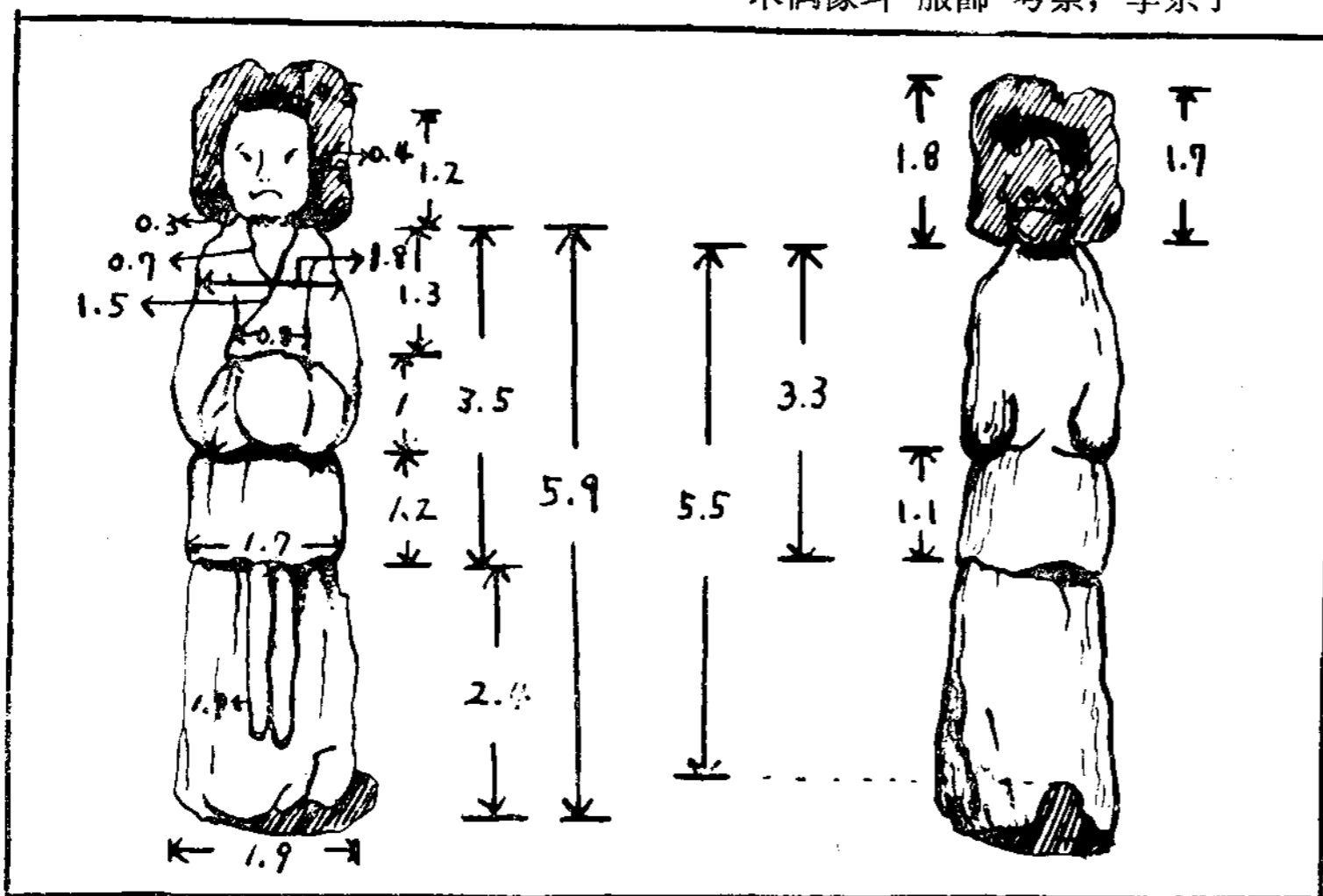
13) 徐兢, 앞책, 卷 11.

14) 燕山君 11年 8月 V. 59.

15) 純祖 34年 4月 V. 34.

16) 金美子, 民庶便服袍의 옷깃에 對한 研究, p. 5.

17) 拙稿, 앞책, p. 97.



結果 약 1.5對1이다.(표 4 참조)

- ② 袖: 모두 直배래의 筒袖狀이다. 다만 袖長은 木偶가 약간 길어 보인다.
- ③ 領·衽: 모두 直領交衽型이나 木偶는 右衽으로 壁畫에서와 같은 左·右衽制의 混亂은 없다. 交衽은 木偶가 훨씬 깊다. 兩者 모두 衽線을 表示하지 않고 있으나 交衽의 깊이로 보아 木偶에는 別布의 衽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 ④ 襖: 壁畫에는 領·袖口·裾에 別色의 襖이 있으나 木偶에는 보이지 않는다.
- ⑤ 帶: 壁畫에는 반드시 襦帶가 있으나 木偶에는 없다.

以上을 綜合하면 木偶의 襦는 三國以來의 基本形을 거의 그대로 傳承한 것이라 할만한데 袍

에 비해 그 傳承이 훨씬 더 忠實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古墳壁畫와 木偶의 襦에는 襖과 帶등에 差異가 있다. 襖은 裝飾的인 意味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帶의 消滅은 劃期的인 것이다. 왜냐하면 帶의 消失—고름의 生成은 上代의 襦가 近世저고리로 轉化하는 契機가 되기 때문이니, 이 點은 袍에서와 같은 것이다

木偶의 襦 2例는 모두 帶가 없다고 봄이 옳다. 이 경우 木偶의 襦 前面에 고름이 있음직 하나 木偶의 拱手한 姿勢때문에 이를 直接 觀察할 수는 없다. 그러나 相當히 깊은 交衽處理는 帶를 대신한 고름이 襦 前面·右側에 있을 것이라 짐작케 한다. 古墳壁畫와 木偶의 襦를 比較하여 交衽의 깊이가 다른 것은 아마 帶와 고름등 交衽方法의 差異와도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男服袍에는 帶가 남아있는데 女服襦에서만 帶가 사라

진 것은 꼭 興味로운 事實이다. 이처럼 帶의 退化·消失過程에서 女服이 先行하고 있는 現象은 女服의 袍가 사라진 것과 關聯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高麗圖經에서 본대로 女服의 第1義的인 옷이 袍였던 時期에도 그 안에는 襦裳 또는 襦袴를 받쳐 입었다고 생각된다.<sup>18)</sup> 이 境遇 袍와 襦·裳(또는 袴) 3重의 帶가 不便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袍 속에 입은 襦에서 裝飾的인 意味마저 잃은 帶가 退化하여 고름이 등장한다고 봄이 어떨까. 어느 時期인가 女服에서 袍가 사라지고 나면 고름이 달린 襦가 表面에 나오고 細短했던 고름은 近世저고리에서 처럼 차차 커져서 裝飾的인 意味를 더한다고 推定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推定에 不過하지만 襦의 短小化로 帶가 사라지고 고름이 生

18) 柳喜卿, 앞책, p. 215.

成된다고 했던 지금까지의 推論과는 다르다. 그러나 木偶가 보여준 帶없는 長襦는 襦의 短小化에 앞서 帶가 消失된 形狀임으로 帶의 消失을 襦의 短小化의 結果로 돌릴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木偶의 襦는 어떤 過程을 거쳐 近世저고리로 轉化한다고 볼 것인가. 이미 帶가 사라진 木偶의 襦는 近世저고리로 轉化하기 直前段階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現存 最古의 實物 史料인 安東金氏의 襦와는 너무나 많은 差異點이 있다. 木偶와 壽衣사이에도 史料 空白이 있는 것이다.

木偶의 襦와 壽衣를 具體적으로 比較해 보면 —

- ① 襦長: 壽衣의 길이가 훨씬 짧다. 筆者 實測에 의하면 壽衣의 등 길이는 58cm로서<sup>19)</sup> 被葬者의 身長이 아무리 작다고 假想해도 엉덩이 밑 以下에 이를수는 없고, 木偶의 襦裳프로포션 1.5對1에 못 미친다.
- ② 袖: 筒袖狀이며 若干 筋點이 같다.
- ③ 領·衽: 모두 直領이나 壽衣에는 別色衿과 동정이 있다.
- ④ 帶: 壽衣에 帶가 없음은 確實하나 고름은 實物로 남아 있지 않다.
- ⑤ 襖: 壽衣는 끝동·衿·옆 등이 別色으로 삼희장의 形制를 갖추고 있으나 木偶에는 袖口에 끝동인가 衿은 흔적이 보일뿐이다.

이상을 綜合해 보면 安東金氏의 壽衣는 近世저고리의 特徵을 모두 갖추고 있는 反面 木偶의 襦는 上代저고리에 가깝다. 兩者의 差異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은 襦長으로 생각한다. 帶가 없는 木偶의 襦는 短小化됨으로서 近世저고리로 轉化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比하면 동정이 있는 領衽制나 삼희장 등은 細部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襦長에 있어서 留意할 點은 壽衣보다 後代에 속하는 光海君 中宮柳氏의 저고리<sup>20)</sup>의 길이가 78cm로 壽衣보다 훨씬 긴 點이다. 그러

나 이 저고리는 唐衣같은 모양으로 壽衣와는 形制가 다르다. 이 두가지 形制는 文獻上으로도 赤古里와 短赤古里로 區分이 된다고 보거나와<sup>21)</sup> 이들이 한가지로 上代襦——木偶의 襦에서 分化發展한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木偶에 나타난 襦色은 1例가 白色, 다른 1例는 黃色이다. 1例의 白色은 宋書에 「高麗土女服尙素」라 한 것이나, 高麗圖經에 「舊俗女子之服白紵黃裳」<sup>22)</sup>이라 한 것을 連想시킨다. 黃色襦는 高麗圖經에 少女服으로 보인 「黃衣」<sup>23)</sup>와 有關해 보이는데 이 木偶女像의 黃衣紅裳은 朝鮮朝後期까지 내려온 女服盛裝이나 王妃便服과 配色이 같아 興味롭다.

### (3) 裳

裳에 있어서도 木偶는 古墳壁畫의 服飾傳統을 이어 받고 있다. 兩者의 裳은 그 실루엣과 프로포션등 基本形이 같다.

그러나 木偶의 裳에는 古墳壁畫에서와같은 裾襖이 없고 그 대신 裝飾的인 裳帶가 길게 느려져 있다. 幅넓은 두줄기 紅色帶가 무릎 밑까지 느려뜨린 모습은 上古服에서는 찾아 볼수가 없는 것으로 朝鮮朝 風俗圖나 韓末치마에 보인 것과 枝似하다. 이로써 裾裾끝으로 裳帶를 느리는 風習은 木偶보다 더 빠른 年代에 이미 비롯됐을 알 것인데 이 帶느림은 襦帶가 없어지면서 그 裝飾效果를 代償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木偶의 裳長은 木偶의 아랫部分이 일부 腐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몹시 길다. 그 모양은 古墳壁畫 形容과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裳의 幅이나 衿루엣은 高麗圖經에 「亦服旋裙 製以八幅……重疊無數以多爲尙……其富貴之家妻妾製裙有累至七八匹者」라 한것보다는 훨씬 좁고 古墳壁畫의 裳보다도 裾의 퍼짐이 덜하다.<sup>24)</sup>

木偶의 실루엣과 襦長으로 볼때 木偶裳의 全長은 比較的短少했던 것으로 짐작이된다. 그와 같은 例는 安東金氏壽衣의 치마에서도 볼 수가

19) 拙稿, 앞책, p. 41.

20) 石宙善, 重要民俗資料指定資料, p. 10.

21) 拙稿,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研究.

22) 徐兢, 앞책, 卷 20.

23) 上同.

24) 高麗圖經 卷 20, 婦人.



있는데<sup>25)</sup> 이 치마는 全長이 90cm에 不過하다. 이 것은 着用者의 身長과도 關係가 있겠으나 역시 比較的 긴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낮게 입은 때문이라 생각된다.<sup>26)</sup> 木偶에 있어서도 裳帶를 허리께에 前結하여 裳을 낮게 입었다고 봄이 自然스럽다.

木偶의 裳色은 1例에서 紅色을 確認할 수가 있다. 高麗圖經에는 「或云王妃夫人紅爲尙」<sup>27)</sup>이라 했으나 紅裳이 높은 社會的身分을 表示하는 것인지는 斷言못한다. 또 이 木偶가 보여주는 紅裳은 朝鮮朝末期까지의 女服盛裝과 配色이 같다. 이와 다른 木偶의 裳色에서는 紅色에 섞여 黃色의 흔적이 보이나 어떤 것인지 알수가 없고 高麗圖經에 「秋冬之裳間黃絹或深或淺」이라 한 것을 留意한다.

#### (4) 頭 飾

##### 1. 男子 頭飾

男子木偶 3人중 2人은 巾모양의 冠帽를 쓰고 있으며 少年像으로 보이는 다른 1點은 冠帽없이 辮髮한 모양이다.

巾은 三國以來로 널리 普及되어 一般的으로 着用되었으며 高麗에서도 그러했다고 생각된다.<sup>28)</sup> 高麗圖經에 王便服으로 「皂巾白紵袍與民庶無別」이라 한 것이나 道士의 「四帶皂巾」, 工技의 「皂巾」, 農商의 「四帶烏巾」, 驅使의 「烏巾」, 進士의 「四帶文羅巾」, 民長의 「文羅巾」, 國官貴人의 「頭巾」, 丁吏·房子·舟人의 「文羅頭巾」 등은, 巾은 王便服으로부터 民庶服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음을 말함이다. 이 巾은 身分과 階級에 따라 形制가 다른 것이었으나 巾의 着用은 麗末服飾 改定을 거쳐 朝鮮王朝에 繼承된다.

木偶 2點의 巾은 그 樣式으로 보아 이른바 平頂巾으로 推定이 된다. 平頂巾의 實際모양은 安

裕肖像畫에서 볼수 있거니와 이 것은 蒙古式으로 開剃한 髮樣과 有關하다는 것이 一般的인 推測이다.<sup>29)</sup>

그러나 木偶의 平頂巾은 安裕肖像畫의 巾과도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巾의 後頭部를 一直線으로 表示하고 그 아랫部分을 민머리로 남겨 놓은 表現은 마치 朝鮮朝 中後期の 網巾과 같다. 木偶는 「韓國의 冠帽」에서 「平頂巾은 巾頂이 方形으로 宕巾形態에 屬한다」<sup>30)</sup>고 한 것과 一致하는 것으로 본다.

이 平頂巾은 高麗末·朝鮮初 上流層에서 着用했고<sup>31)</sup> 高麗史卷 72에 보면 知印 主事 등 末端官吏의 冠帽로 平頂巾이 보인다.

나머지 少年像에 보인 髮樣은 朝鮮王朝末期까지 傳來한 童子辮髮의 風習과는 다르다. 高麗圖經에 「麗人大率未娶者皆裹巾而被髮於後 既娶而後束髮」<sup>32)</sup>이라 한 것과 「民庶之家女子未嫁紅羅束髮其餘被下 男子亦然特易紅爲黑繩耳」<sup>33)</sup>라 한 것은 未婚者被髮은 男女가 共通이며 少女紅땡기 少年 黑땡기의 差異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風習은 芝峯類說 등 近世學者들이 「童子之辮髮出於胡俗」<sup>34)</sup>이라 하며 이를 蒙古의 影響으로 보고 있으나, 이 童子像은 被髮이니 辮髮과 어떠한 關連을 지어야 할지 未審이다.

##### 2. 女子 頭飾

女子木偶의 頭飾은 冠帽없이 加髻하여 樣式化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加髻樣式은 文獻上,

「出嫁則分爲兩道盤於頭上」

「婦人辮髮繞頸」<sup>35)</sup>

등으로 三國以來 朝鮮朝末期까지 傳承됨을 알수 있다.

25) 拙稿, 앞책.

26) 柳喜卿, 앞책, p. 494.

27) 徐兢, 앞책, 卷 20.

28) 沈載完, 韓國의 冠帽, p. 30.

29) 柳喜卿, 앞책, p. 174.

30) 沈載完, 앞책, p. 65.

31) 앞책 同一.

32) 徐兢, 앞책.

33) 앞책 同一.

34) 芝峯類說 卷 2 地理部, 諸國部.

35) 北史, 東夷傳, 百濟之國. 三國史記, 新羅本記 聖德王條.



(도 5) 加髻(韓國服飾史)

이와 같은 加髻樣式이 細部的인 것 까지 古來로 같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木偶의 머리모양은 高麗圖經에 「婦人之髻貴賤一等垂於右肩餘髮被下束以絳羅貫以小簪」<sup>36)</sup>이라 한 것과는 分明히

다르다.

그러나 約 5百年前부터 傳承되어오는 河回別神宮假面(도 5)<sup>37)</sup> 중에서 木偶와 비슷한 加髻모양을 볼수가 있다. 假面劇의 傳承年代로 보면 이 모양이 木偶와 비슷한 年代의, 비슷한 髮型을 보인 것이 아닌가 疑心이 가지만 確認할 수는 없다.

<표 1> 木偶의 服飾

木偶	上衣	下衣	頭飾	기	타
男 子	①	袍	被髮	파손으로 인해 관찰 불	
	②	袍	巾		
	③	袍	"		
女 子	①	襦	裳	파손 관찰 不可	
	②	襦	裳		

<표 2> 袍

木偶	衽	袖	領	帶	色	기	타
男 子	①	右	筒	直領交衽	束帶	赤	길이 : 바닥까지
	②	右	筒	直領交衽	束帶	赤	"
	③	右	筒	直領交衽	束帶	赤	"

<표 3> 襦

木偶	衽	袖	領	帶	色	기	타
女 子	①	右	筒	直領交衽	無	黃	길이 : 허리 아래
	②	右	筒	直領交衽	無	—	"

<표 4> 木偶像 實例

(단위 : cm)

木偶	총장	袍				襦				裳			비례 (襦:裳)
		長	袖	領	帶	長	袖	領	帶	長	帶	폭	
男 子	①	5.5	5.5	1.1	1.3	2.8							
	②	5.9	5.9	1.2	1.3	3.5							
	③	6	6	1	1.4	3							
女 子	①	5.9				3.5				2.4	1.9	1.9	1.5 : 1
	②	5.5				3.3	0.9	1.6		2.2	1.4	1.9	1.5 : 1

한가지 留意할 것은, 木偶의 加髻樣式이 어떻게 近世頭飾에 連結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朝鮮王朝 中後期에 加髻가 盛行하며 그 弊害가 여러차례 論議되고 禁制가 거듭되고 있는 事實이다.

이 過程에서 學者들은 加髻辨髮이 蒙古風이라 指摘하고 있는데<sup>38)</sup> 正確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6) 徐兢, 앞책.

37) 崔常壽, 河回假面劇의 研究 참조.

38) 英祖 33年 正月.

## IV. 結 言

木偶像의 服飾 特徵은 한마디로해서 三國以來의 遺制를 상당히 充實하게 傳承하고 있는 反面 近世服飾으로 變轉할 많은 要素를 지니고 있는 點이다. 이는 木偶像의 服飾이 近世服飾 成立의 바로 前期에 該當함을 말해준다.

앞서 여러차례 指摘한대로 木偶像의 襦裳이나 袍는 너무나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制와 恰似하다. 특히 襦와 袍의 長·袖形, 裳의 基本型, 그리고 袍帶의 處理方式이 그렇다. 이로서 歷代中國服飾의 影響 속에서도 우리國俗의 服飾制度가 連綿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것이니 아무리 服飾 漸變의 原則<sup>39)</sup>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國俗의 꾸준함에 驚嘆을 금할수가 없다. 高麗 倡妓의 鄉粧에서 三代의 遺制를 보았다는 宋使 劉達의 嘆辭<sup>40)</sup>도 이런 꾸준함에서 緣由한다 할 것이다.

反面 우리는 木偶像를 통하여 三國以後 수백년 동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服飾 變化를 發見한다. 基本的인 것만해도 ① 男女袍制의 變轉, ② 襦帶의 消失, ③ 襪의 消失 등이 있다.

男女袍制의 變化는 上代에 受容된 袍가 차차 得勢하여 麗代初中期에는 第1義的인 자리를 굳힌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역시 中國服飾의 影響이라 봄이 옳겠으나 木偶像는 高麗圖經以後 어느 時가 우리女服이 袍를 벗어버리고 固有의 襦裳을 復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近世服飾의 男女袍制는 바로 木偶像의 袍制와 같은 것이다.

上古服飾에 보였던 襪은 木偶像보다도 빠른 年代에 없어진 것 같다. 高麗圖經에 「紵衣即中單也夷俗不用純領」<sup>41)</sup>이라 한것은 이때 이미 襪이 사라졌음을 말함이다.<sup>42)</sup>

木偶像는 또 帶가 있는 男服袍와 帶가 없는 女服襦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는 上代服飾의 帶가 消失되는 過程, 나아가서는 近世服飾의 成立過程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女服의 袍가 사라지고 襦帶가 자취를 감추며 男服袍帶

의 退化는 이보다 늦게 일어 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服飾現象은 木偶像의 年代가 麗末·鮮初라고 할 때 더욱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 그 첫째는 우리 服飾史의 흐름을 把握함에 있어서 中國服飾 특히 蒙古服飾의 影響이 지나치게 強調돼 왔다는 事實이다. 木偶像에서 보듯 우리 國俗服制는 麗末까지 傳承되고 있다. 이 點은 女服에서 더욱 그러하니 木偶像의 女服은 오히려 襦裳의 固有服制로 復歸하고 있다.

帶의 消失 過程만해도 지금까지는 그 時期를 막연히 高麗時代, 또는 高麗의 蒙古服屬期로 보고, 蒙古服의 影響을 받은 襦의 短少化로 帶가 消失되고 대신 高름이 登場한다고 推定해왔다. 그러나 木偶像는 이와같은 推論에 反論을 提起한다. 그 첫째는 麗末까지 傳承된 古制의 袍長은 襦의 短少化가 相當히 늦게——또는 蒙古服屬期以後에 일어났음을 보여 주며, 둘째 帶없는 長襦는 帶의 消失과 襦의 短少化보다 앞섬을 보여 주는 것이다.

以上에서 指摘했듯이 木偶像는 우리上代服飾과 近世服飾을 連結하는 麗代의 服飾變化를 解明할 唯一한 實物史料로 評價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은 出土狀況이 模糊하고 文獻의 뒷받침이 없어 그 年代를 斷定할 수가 없고, 따라서 木偶像에 나타난 服飾現象을 좀더 明快하게 解明할 수가 없는 點이다.

服飾史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木偶像의 服飾은 麗末鮮初 보다는 上代로 잡아야 할 要素도 보이고 있다. 그 服飾이 近世服飾 보다는 上古服飾에 가깝고, 頭飾에 있어서도 被髮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木偶像의 服飾이 麗代 中期以後 服飾을 解明할 重要史料임에는 틀림이 없다. 木偶像의 服飾은 그 年代의 確定을 기다려 再論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39)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上 참조.

40) 金富軾, 三國史記, 卷 33.

41) 徐兢, 宣和殿, 卷29.

42) 金東旭, 앞책, p. 306.

2. 金富軾, 三國史記. 서울: 朝鮮史學會, 1940.
3. 徐 兢, 宣和奉使高麗圖經. 京城: 近澤書店, 昭和 7年(1932)
4.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1.
5. 沈載完, 韓國의 冠帽. 大邱: 嶺南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72.
6.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7. 高麗以前의 風俗關係資料撮要. 서울: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6年.
8. 高麗史. 서울: 延禧大學校 東方學研究所刊, 1961.
9. 北史.
10. 海東繹史. 卷20, 奎章閣
11. 李德懋, 靑莊館全書.
12. 李晬光, 芝峰類說.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大正 4年(1915).
13. 拙 稿, “女子저고리小考” 가정학회지 8號. 서울: 대한 가정 학회
14. “ , “高句麗古墳壁畫의 服飾 研究” 論叢. 서울: 韓國文化研究院, 1976.
15. “ ,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研究” 服飾, 서울: 복식 학회 1977.